

## 죄의 맷돌, 은혜의 소금

### The millstone of sin, the salt of grace

(마가복음 Mark 9: 42-50)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죄는 무거운 맷돌이다' 죄의 무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맷돌은 곡식을 곱게 가는 육중한 두 개의 돌 덩어리를 말합니다. 맷돌을 들려면, 어른 몇 명이 공공 힘을 써야 간신히 들 수 있습니다. 또 나귀를 동원해야 운반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무게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일평생을 죄문제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로마서 7 장은 죄 앞에서 서있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Have you been doing well in God's grace during past week? Today 's scripture explains the weight of sin as a heavy millstone. At the time of Jesus, the millstone was a set of two circular heavy stones used for finely grinding the grain. A millstone is so heavy that a few strong adults altogether can barely lift it. We know by experience how serious the sin is. The great apostle Paul struggled all his life with the issue of sin. Romans 7 reveals clearly the weakness of humanity faced with sin.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로마서 7:19-20, 24)

For I do not do the good I want to do, but the evil I do not want to do—this I keep on doing. Now if I do what I do not want to do, it is no longer I who do it, but it is sin living in me that does it.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that is subject to death? (Romans 7:19-20, 24)

죄는 내 생각보다, 내 몸무게보다 훨씬 더 묵직한 맷돌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벌거숭이가 된 내 모습 때문에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골방에 숨어서, 밝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삽니다.

왜 무기력해지고, 까닭모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까? 혹시 '죄의 맷돌'이 나를 얽누르고, 일어서지 못하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남 모르는, 맷돌처럼 무거운 죄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신음하고 계십니까?

A sin is a millstone much heavier than it seems. After committing a sin, we become so nervous as if we were exposed naked. With sin, we tend to condemn ourselves, hide in the closet, and live a life disconnected from a bright world. Why do we feel helpless and depressed? By any chance, is the "millstone of sin" engulfing us and crushing us so as not to stand? Are you worrying or groaning about a sin, heavy like a millstone, nobody knows?

죄가 무서운 이유는 단지 죄의 무게뿐만 아니라, 죄의 놀라운 '전염성'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도움의 손길까지도 죽음의 바다 속으로 함께 끌고 들어갑니다. 죄의 사슬에 얽매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옆 사람까지 죄에 물들게 만듭니다. 근묵자흑(近墨者黑), 먹을 가까이 하면, 하얀옷에 검정물이 들지요.

처음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죄의 유혹을 물리쳐요. 그런데 한번 두번 죄의 은밀한 유혹 앞에 노출될 때마다, 방어벽에 구멍이 생깁니다. 일단 손톱 만한 틈이 생기면, 그 틈을

집중공략해서 어느새 죄의 홍수가 밀어 닥칩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마가복음 9:42)

The reason why a sin is terrifying is not only because of the weight of sin, but also because of the incredible 'infectiousness' of sin. A person who has fallen into the water also drags the helping hand into the sea of death. Once tied up with the chain of sin, you unconsciously drive your neighbor to a sin. One who stays near ink gets stained black. At first, we may firmly resist the temptation of sin by saying 'I command you, Satan, in the name of Jesus to go away'. But as you are exposed to the sinful temptation more and more, a hole in the defenses may appear. Once a hole is made, the intense penetration of sins floods through the hole. "If anyone causes one of these little ones-- those who believe in me-- to stumble, it would be better for them if a large millstone were hung around their neck and they were thrown into the sea. (Mark 9:42)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해주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사실 그 말씀은 무제한으로 용서해주라는 의미인데, 한번 실수로 죄를 지면, 그 무거운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버려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진짜 더 끔찍합니다.

네 손이 죄를 짓거든, 그 손을 찍어 버려라! (v.43)

네 발이 죄악을 향해 달려 가거든, 그 발을 잘라 버려라! (v.45)

네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차라리 그 눈을 뽑아 버려라! (v.47)

Where has the Lord's word, 'not seven times, forgive seventy-seven times,' disappeared? In fact, this means to forgive without limit. How could he say "If anyone causes one of these little ones—those who believe in me—to stumble, it would be better for them if a large millstone were hung around their neck and they were thrown into the sea"?

The words that follow are more terrible.

If your hand causes you to stumble, cut it off! (v.43)

If your foot causes you to stumble, cut it off! (v.45)

If your eye causes you to stumble, pluck it out! (v.47)

두 손, 두 발, 두 눈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손, 한 발, 한 눈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잘 들어보세요. 해도 좋고, 안해도 괜찮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범하는 즉시 잘라 버리고, 뽑아 버리라는 명령문입니다. 죄를 질 때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신체부위를 하나씩 절단해야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손과 다리는 2 만개, 눈과 귀는 5 만개, 입은 한 10 만개 정도는 족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장수하는 시대에는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손과 발, 입이 필요할 겁니다. 90 세쯤되면 더이상 잘라 버릴게 없어서 장기은행에서 새로 사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성서가 말하는 인간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Rather than going into ever-lasting fiery hell with two hands, two feet, and two eyes, It is better to go to heaven with one hand, one foot, and one eye. Listen carefully. This is not an issue that you can choose. It is a command that you should cut it off and pluck it out immediately when you commit a sin. Imagine cutting the parts of your body that causes you to stumble each time you commit a sin. You may need 20,000 of hands and legs, 50,000 of eyes and ears, and about 100,000 of mouths. In this era of longevity, you will need many more hands, feet, and mouths. By the time you turn 90 years old, you will not have any body

parts left, so you may need to buy new body parts. Here is a summary of human nature the Bible describes. As everyone has sinned, no one can reach the glory of God.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 속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시편 14:1)

The fool says in his heart, “There is no God.” They are corrupt, their deeds are vile;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 (Psalm 14:1)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10-11)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there is no one who understands; there is no one who seeks God.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 not even one. (Romans 3: 10-12)

율법만으로 심판대 앞에 선다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월가를 점령한 시위대의 구호는 '우리는 [상위 1%를 제외한] 99%' 이지요. 죄와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도 흠없고 완전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지금 아주 솔직하게, 내 마음속 깊은 내면세계를 들여다 봅시다. 죄라고 말하면, 법률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살인, 강도나 반인륜적 죄를 범하지 않으면,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성서에는 613 개 율법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십계명이 됩니다. 더 간단하게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가지 계명만 남습니다. 온 맘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 자, 얼마나 심플합니까? 이 두 계명 안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There is no one who can enter the kingdom of heaven if one is judged by the law.

The slogan of the protesters who occupied Wall Street was 'We are 99% [excluding the top 1%]'. When it comes to a sin, man who cannot be flawless, are all sinners 100%.

Now let 's be very honest and look into my inner world. There are many who understand a sin only legally or ethically. If you haven't committed murder, robbery or anti-human crimes, you tend to think you are a good person. There are 613 laws in the Bible that could be summarized as the Ten Commandments. In simpler terms, there are only two commandments: love God and love your neighbors. Love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understanding and with all your strength. Love my neighbor as yourself. Now, how simple is it? These two commandments contain everything we need to do.

사랑에 빠져 본 적이 있으시지요?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워집니다. 이 세상 수십억명 중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최고로 멋집니다. 그 사람을 위해선 뭐든지 다 할수 있습니다. 하루종일 함께 있어도 절대 지겹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있고 싶습니다. '사랑해야지, 난 사랑하고야 말거야' 의무감으로 연애하는 사람 보셨어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무기력한 삶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무서운 징계가 아니라, '사랑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Have you ever fallen in love? In love, your eyes are covered with a veil. Of all the billions of people in the world, one man or one woman becomes the most attractive person. You can do anything for that person. Being with each other all day long never gets boring. You want to be together forever. Have you ever seen a person in relationship out of obligation like 'I must love, I am determined to love'? What a weary, tiring, and exhausting life. In fact, today's scripture is not about horrifying punishment but 'the restoration of love'.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게 되지요. 정말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뭐하러 힘들게 일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합니까? 천당가기 5분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하러 밀고 당기고 연애했습니까? 죽기 5분 전에 배우자 만나서 사랑하면 되지. 도대체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한평생 내 맘대로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평생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까? 자, 이제 우리 손과 발, 눈과 귀, 입을 좀 점검해 보십시오.

If we love God truly, we are bound to worry over ‘how to please God’? If we love our family and neighbors, we think about ‘what would bring joy to them’. Why do we go through troubles of believing in Jesus and living out our faith in our lifetime? Isn’t it enough to repent 5 minutes before going to heaven? Why do we go into long dating relationship, pulling and pushing? Isn’t it better to meet a spouse and love 5 minutes before dying? What is the purpose of believing in Jesus? Is it to receive a shameful salvation after living a whole life of we pleasing ourselves? Or is it to be in beautiful love relationship with the Lord during our life in this world tasting the heaven beforehand? Now, let us examine our hands, feet, eyes, ears, and mouth.

세 명의 친구가 낚시를 가서, 깜깜한 밤중에 서로의 비밀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번째 친구가 ‘난 알콜 중독이야’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두번째 친구는 ‘난 포르노 중독이야’ 고백했습니다. 세번째 친구는 두 친구의 고백을 듣는중에 도저히 입이 간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급히 낚시도구 챙기더니 곧바로 이 엄청난 뉴스를 전하기 위해 마을로 달려 갔습니다. 우리 손과 발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을 한다면,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우리 눈과 귀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면, 당장 눈과 귀를 닫아버려야 됩니다. 우리 입이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든다면, 당장 그 입을 막아 버려야 됩니다.

Three friends went fishing and started to confess their secrets to one another in the pitch dark night. The first friend opened up, ‘I am an alcoholic’. The second friend confessed, ‘I am addicted to pornography.’ The third friend, listening to his two friends’ confession, could not stop his mouth from the urge to gossip. He picked up his fishing equipments in a hurry and ran to the village to spread this breaking news right away. If our hands and feet make God sad, we must stop at once. If our eyes and ears grieve the Holy Spirit, we must close our eyes and ears right away. If our mouth pains the Lord’s heart, we must shut that mouth right away.

죄인은 죄의 멍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죄의 심연에서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A sinner gets thrown into the deep sea with the millstone of sin hung on his neck. But the gospel shows off its true value even more in the midst of that place of deep despair and inescapable sin.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 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디도서 3:3)

“At one time we too were foolish, disobedient, deceived and enslaved by all kinds of passions and pleasures. We lived in malice and envy, being hated and hating one another.” (Titus 3:3)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디도서 3:4-5)

… But when the kindness and love of God our Savior appeared, 5 he saved us, not because of righteous things we had done, but because of his mercy. He saved us through the washing of rebirth and renewal by the Holy Spirit, (Titus 3:4-5)

가장 큰 착각과 오해는 우리가 뭘 잘하면, 하나님 사랑이 더 커지고, 뭘 잘못하면, 하나님 사랑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8)

The biggest misunderstanding and illusion is that God’s love increases when we are being good and His love decreases when we are bad.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Romans 5:8)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사랑은 무한합니다. 측량 할 수도, 제한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고린도후서 5:14)

God’s love toward you and me is infinite. It’s immeasurable and cannot be limited. The width, depth, and height of God’s love is beyond our imagination.

“For Christ’s love compels us, because we are convinced that one died for all, and therefore all died.” (2 Corinthians 5:14)

오래된 습관이나 본능을 넘어서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남자청년이 제게 상담을 요청 했습니다. 혼자 있는게 두렵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음란 동영상을 보지 말아야지 굳게 결심하는데, 어느덧 중독이 됐는지 기숙사에 혼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포르노를 보고 있습니다. 죄의 중독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그 청년의 손을 붙잡고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000 형제의 결단으로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유혹을 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세요. 성령님, 정결치 못한 것을 대할때 마다, 형제의 눈과 귀를 완전히 닫아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싸움이었지만, 조금씩 눈과 귀를 막는 훈련을 했습니다.

눈을 파내는 아픔으로 최악의 뿌리를 잘라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돌아가서 대학강단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10년 전에 그런 처절한 싸움이 없었다면 지금쯤 그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해도 끔찍해요. 요사이 봇물처럼 터진 미투운동의 가해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To overcome an old habit or instinctive desires is really a difficult and challenging struggle.

When I was working as a pastor in Boston, a young man asked for a counseling one day. He was afraid of being alone. Whenever he came to church, he would resolve not to watch pornography. But when alone in a dormitory, he found himself watching pornography. It seemed he became addicted without knowing. I shared scriptures on the addictive nature of sin and held his hands and prayed together in tears. ‘Lord, with this loving brother’s

determination alone, it's impossible to cut off the temptations that keep rushing in endlessly. With the love of the cross, with the power of the cross, be with him. Holy Spirit, whenever he is faced with unclean things, shut this brother's eyes and ears off completely.' Though it was a hard and difficult spiritual battle, he started training in closing his eyes and ears a little by little. He cut off the root of evil sin with the pain of plucking out his eyes. Now he is back to Korea, teaching in a college. 'Had there not been such a painstaking struggle, what that young man would have become now?' I don't even want to imagine. He may have become a sexual offender in today's Me Too movement that has been pouring out like a broken dam.

차라리 멧돌을 매고 물에 빠지는게 낫다. 차라리 손발 자르고, 눈을 빼버리는게 낫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문제의 심각성/ 중독성/ 전염성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는 결코 최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까? 왜 흠없는 어린 양이 치욕스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힘과 의지로 죄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 사랑 곁에 서있는 것입니다.

It is better to hang a large millstone around one's neck and be thrown into the sea. It is better to cut off hands and feet, and to pluck out one's eyes. What does this mean? It is the word of warning about the seriousness, addictiveness, and contagiousness of our sinful nature. In my strength, my will power, and my determination, I can never escape from the deep dark pit of evil sin. Why did the Lord carry the cross? Why was the blameless lamb of God hung on the cross as a shameful sinner? He bore sin of you and me on our behalf. Because we could not solve the problem of sin with our strength and will power, he had to bear the cross for us. Our part is to stand by the amazing grace of the Lord and the love of the cross.

‘죄의 멧돌’로는 구원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소금’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거룩한 산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소금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멧돌과 소금은 아무런 연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주님께서 멧돌 이야기 하시다가, 갑작스레 소금 이야기를 꺼내십니까? 소금이 뭔지, 소금의 역할이 뭔지 좀 살펴 보십시오.

There is no body who can be saved by the 'millstone of sin'. The Lord has come to us as the "salt of grace." He came to this earth to die for us as a holy living sacrifice. Owing to the salt of grace, the past is gone and we become new creations. At first glance, the millstone and salt seem to have no relations. Why did the Lord talk about the millstone, and suddenly bring up the salt story? Let's examine/consider what the role salt is.

네가 바치는 모든 곡식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네가 바치는 곡식제물에는 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레위기 2:13)

Season all your grain offerings with salt. Do not leave the salt of the covenant of your God out of your grain offerings; add salt to all your offerings. (Leviticus 2:13)

왜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소금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소금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요즘은 소금을 백해무익한 값싼 조미료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은 아주 소중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월급의 일부를 소금 [salarium salary] 으로 받았습니다. 중동에 이런 관용구가 있습니다. ‘There is salt between us.’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 예전에는 소금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 소금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되면, 가까운 친구 ‘We are now friends.’ 라는 의미 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친구, 가장 귀한 소금이 되주셨습니다.

Why did he command us to add salt to our grain offerings? There are several characteristics of salt. First, salt is very precious. Nowadays it is easy to think of salt as a harmful, non-beneficial and cheap seasoning. But in Jesus' time, salt was considered as very precious and sacred. Roman soldiers received part of their salary as salt [salarium salary]. There are these idioms in the Middle East. “There is salt between us.” In the past, salt was so precious that sharing salt meant a close friendship, "We are now friends." The Lord has been a precious friend to us, the most precious salt.

둘째, 소금은 놀라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소금은 그저 녹아 없어지는 것 같지만, 썩지 않도록 방부제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죄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킬러라면, 소금은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빌더입니다. 죄가 나쁜 전염병이라면, 소금은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예방주사 입니다.

Second, salt has an incredible influence. Salt seems to melt away, but it acts as a preservative to prevent rot. Whereas sin is a killer of oneself and others, salt is a builder that saves the home and community. Whereas sin is a bad plague, salt is an immunization that leads to holiness.

셋째, 소금은 우리 주변을 은혜로 감싸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4:6)

Third, the salt wraps around us with grace.

Let your conversation be always full of grace, seasoned with salt, so that you will have the right response for everyone. (Colossians 4: 6)

말과 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서는 세치 혀가 결코 축복과 저주를 번갈아 말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 물과 쓴 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3:10-11)

소금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소금은 죄에 물들지 않게 우리 심령을 붙들어 줍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소금의 입술’이 되십시오.

The importance of words and tongues cannot be overemphasized.

The Bible warns that the 3 inch tongue cannot alternate between blessings and curses.

Out of the same mouth come praise and curse. My brothers and sisters, this should not be so.

Can both sweet water and bitter water flow from the same spring? (James 3: 10-11)

Salt is truly precious. Salt keeps our spirit free from sin. First of all, let' be careful with our lips. Let's be blessed 'lips of salt' to share love and grace anytime and anywhere.

혹시 아직까지도 ‘은혜의 소금’을 맛보지 못하고, ‘죄의 멧돌’에 눌림 당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고통으로 우리의 죄악과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마지막 한방울 피까지, 당신의 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소금으로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썩고 굼아터진 그 자리에 위로와 평강의 소금이 되십니다. 죄 때문에 변질되려 할 순간에 온 몸을 다 녹여 우리를 살리시는 소금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가정에, 일터에 찾아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십니다. 완전히 녹아서 겉모습은 찾을 수 없지만, 맛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소금이 돼주셨습니다.

Have you not yet tasted the salt of grace, and are you being pressed by the millstone of sin? The Lord took charge of our sins and our troubles with the anguish of the cross. He gave us his body to the last drop of his blood for us. The Lord has come to us as a salt of grace. He is the salt of peace and comfort in the places rotten by sins. He is the salt that brings us to life by melting its own body at the moment when we are about to be transformed by sin. The Lord comes to our home, and to our workplace, and gives everything. The salt is completely melted and the appearance is not found, but it can be recognized by taste.

오래 전에 한 청년이 먹을 것이 툇 떨어져서, 굶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부랴부랴 마켓에 가서 쌀 한포대, 라면 한상자, 김치 한병 사서, 다음 날 새벽예배 마치고, 곧바로 찾아가서 먹을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청년의 원룸 아파트를 나서는데 제 눈길을 사로잡는게 있었습니다. 바로 부엌 한쪽을 가득메운 소주, 양주, 맥주 각종 술병들입니다. 급한 마음에 새벽에 심방을 했는데 아니 이게 왜 일입니까? 운전하며 교회로 돌아오는 동안 계속해서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술 살 돈은 있고, 쌀 살 돈은 없나?'

A long time ago, I heard that a young man was out of food and was starving. I rushed to a market, bought a bag of rice, a box of Ramyun and a jar of Kimchee. On the next day after the early morning service, I brought the foods to him. As I was leaving his studio apartment after praying together, there were things that caught my eye. One side of the kitchen was full of all kinds of alcoholic drink bottles including Soju, liquor and beer. At my early morning visit, I wondered how it could be this way. While driving back to the church, I kept feeling uneasy. 'Does he have money to buy alcohol, but no money to buy food?'

이런 정죄의 마음은 내가 뭔가를 베풀어줬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들끓는 마음을 다스리면서 정말 힘들게 기도 하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제 맘 속에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은 척, 거룩한 척하지만,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Such judgement and condemnation came when I thought that I offered charity.

When I prayed really hard, the love of the cross began to flood into my heart.

'You pretend to be good and holy, but you are the same type of sinner! I died for you as well.'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1-2)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o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because through Christ the law of the Spirit who gives life has set you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Romans 8: 1-2)

'정죄의 멍돌'에서 벗어나 '은혜의 소금'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만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동안 누군가에게 '은혜의 소금',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Please set yourself free from the millstone of condemnation and enjoy the salt of grace.

Rather than enjoying the grace of the cross alone, let's share with someone the "Salt of Grace," the gospel, this coming week. I bless you in His name that you be led in triumph in Christ in the upcoming week.